

## Keynote Presentation

## Reflections on Chungnam: Then and Now

Kathleen Stephens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 /  
former U.S. Ambassador to the R.O.K.)

Governor Ahn Heejung, ladies and gentlemen:

I am honored and delighted to join you for this important gathering. It is a particular pleasure to be back in Chungnam, my Korean “hometown.”

I first came to Korea – and to Chungnam – forty years ago, in 1975, as a young Peace Corps volunteer.

I came to teach, but I learned far more than I taught.

I learned my first lessons about Korea, about Northeast Asia – and about diplomacy – here in Chungnam.

In the ensuing years, I lived and worked in and on China and Korea – as a young diplomat assigned to China shortly after the U.S. and China reestablished full diplomatic relations, in Korea in the 80s during a time of great political change – and again over the last decade in our joint efforts in the Six Party Talks – as well as U.S. Ambassador to Korea.

Despite all those years, I am here today more to listen and to learn than to prescribe

or pontificate.

I very much welcome Governor Ahn's initiative, and the commitment of everyone here, to deepen a dialogue between the people of Chungnam – and those in this remarkable and vibrant region of the Yellow Sea.

One of the lessons I learned living in Chungnam forty years ago was an appreciation for the history of this region – a history still being uncovered and more deeply understood.

I learned that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Korea – and in particular the Paekche Kingdom with its capital in Buyeo, was a transmission belt, receiving and exporting culture and technology in the region.

Historians tell us that during this time, there was considerable interchange between what are now Japanese island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ainland of China. In this early period, the people on what is now the southwest coast of Korea unofficially controlled much of the trade in the Yellow Sea and between China and Japan.

And of course it was here in Buyeo that we can still see the memorials to the battles that pitted Silla against Paekche, along with forces from Tang China and from Japan.

All that was a long time ago. But it's a reminder that our discussions today are in a place that, even within the Korean context, has been an extraordinary focus of cooperation as well as competition and conflict.

But before I turn to the issues of today, the issues that will shape the lives of the next generation, let me say just a few words about the more recent past, a past in Chungnam I experienced personally.

It's become a cliché to talk about Korea's extraordinary modern development as an economic power and a mature democracy, remarkable both its speed and for its emergence from the most unpromising of starts: colonial rule, division, war.

The Korea – the Chungnam – I first knew in the 1970s was a very different place from

what we see today. My one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 with “internationalization” – was the heavily censored copy of Time magazine I could buy once a week on a trip to Taejeon, the provincial capital. My mere walking down the street anywhere in Chungnam drew immense curiosity from young and old, most of whom had never seen a Westerner before. I knew no one who had ever been to the U.S., or for that matter anywhere outside Korea. Getting a passport, or foreign currency, was rare indeed.

But things were changing, even in the two years I lived in Chungnam. I saw it with my own eyes: the fruits of economic development delivering benefits and change – education, opportunity, jobs. In later years, when I returned in the ‘80s, I saw the fruits of democratization in a blossoming of creativity and energy.

During my time as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it was always a special pleasure to return to Chungnam. It has changed almost – but happily – not completely – beyond recognition. It has, indeed, become international.

And it is not just Chungnam – or Korea – that has changed. The region around it has, too, notably China and its own remarkable rerise as a major economic power and partner to Korea, Japan, and of course the United States.

I have fond memories of weekends on the Yellow Sea, watching the fishermen and their boats, the farmers in the fields. You can still find them today, but even more, of course, there is intense economic activity, bringing new prosperity certainly, but also greater environmental challenges.

At the same time the security challenges are more complex than ever.

A more recent and far less fond memory for me, and for many of us here, is of the sinking of the Cheonan in 2010, as well as the shelling of Yeon-pyong Island. These acts, combined with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heightened maritime tensions, underscore both the difficulty and the necessity of addressing the security as well as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of the Yellow Sea and the surrounding regions.

I hope that in this conference and in the efforts to follow a dialogue can begin and grow that will address these issues.

I appreciate being asked to participate in this efforts. Both as an adopted daughter of Chungnam, and as a former American official, I would like to see the United States – both at the governmental and private levels, contribute to a dialogue aimed at building confidence, reducing tensions, improving communication, and growing trade and shared prosperity in the Yellow Sea and beyond.

## 기 조 발 제

## 충남에 대한 단상: 과거와 현재

캐슬린 스티븐스

(스탠포드대학교 William J. Perry Distinguished Fellow / 전 주한미국대사)

안희정 도지사님, 귀빈 여러분,

오늘 이런 중요한 회의에 오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제 “고향”인 충남에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40년 전인 1975년 평화 봉사단 단원으로 한국 충남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왔지만,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한국과 동북 아시아, 그리고 외교에 대해 처음 배우게 된 곳이 바로 이 곳 충남입니다.

그 후 저는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재수립한 직후 중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했고, 한국이 엄청난 정치적 변혁을 겪은 80년대 한국에서 일했으며, 주한 미국 대사로써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은 6자 회담을 위해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오늘은 앞에 나서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충남 도민과 생동감 넘치는 황해 지역민간 대화를 발전시키려는 안 도지사

님의 구상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지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40년 전 충남에서 살면서 배운 한 가지는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감상인데, 지금도 이에 대한 발견이 계속되고 이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삼국 시대, 특히 부여에 수도를 둔 백제 시대 때 이곳이 지역 문화와 기술을 주고 받던 전송 벨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현재의 일본, 한반도, 중국 간 상당한 교역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시대 초기에 현재 한국 서남해안의 사람들이 황해와 중일간 무역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또한 이 곳 부여에서 우리는 중국 당나라, 일본 군대와 더불어 신라와 백제 간 전투가 남긴 기념물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논의가 한국 입장에서 볼 때도 경쟁과 갈등 뿐 아니라 협력의 본거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지을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충남의 최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이 식민 지배, 분단, 전쟁이라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경제적 강국과 성숙한 민주주의로 부상했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식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의 한국 그리고 충남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바깥 세상, 즉 “국제화”와 유일하게 연결되었던 방법은 충남 지방 수도인 대전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구매한, 심하게 검열된 타임지였습니다. 충남의 거리를 걸어 다니기만 해도 서양인을 처음 보는 시민들의 눈길을 엄청나게 끌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밖을 나가본 사람을 보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여권을 만들거나 외화를 구하는 일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변했고, 제가 충남에서 살았던 2년 동안에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경제 발전이 교육, 기회, 일자리라는 혜택과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돌아왔을 때는 피어나는 창의력과 에너지 속에서 민주화의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로 일하면서, 충남을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충남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는데, 충남은 그야말로 국제화가 되었습니다. 충남과 한국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남을 둘러싼 지역, 특히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의 파트너이자 경제 대국으로 재부상했습니다.

주말이면 황해에 나가 어부와 고기잡이 배, 들판의 농부를 보던 따뜻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을 볼 수 있고, 새로운 번영을 가져다주는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 과제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안보 문제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일어난 가슴 아픈 연평도 포격과 2010년 천안함 침몰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사건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해양에서의 긴장 고조와 맞물려 황해와 주변 지역의 경제, 환경 문제는 물론이고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회의와 후속 노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화가 시작되고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남의 딸로서, 전 미국 관료로서, 미국이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황해와 이를 넘어선 지역의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 커뮤니케이션 개선, 무역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